

‘지혜로운 여성’으로...

불교여성개발원 법인 설립, 리더십 교육·가족 관련 사업 전담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불교여성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될 사단법인을 설립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이란 이름의 법인 신청서를 제출해, 1월 중순 경 설립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법인 설립은 불교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여성계와 일반 사회에서의 인지도도 높이고, 불교계 여성운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해 4월 김인숙 원장을 위원장으로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4차례 걸친 추진위원회의를 열어 법인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1회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열고, 12월에는 ‘제1회 불교여성인재양성 기금마련 바자’를 개최하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주력했다.

한주영 연구과장은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은 여성불자 조직화 사업, 새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은 여성·가족 관련 교육을 주로 맡게 된다”며 “불교라는 테두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실시했던 ‘여성불자 108인’ 선정과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 등은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 차원에서 진행하며, 사단법인은 여성

리더십교육, 직장 내 양성평등운동, 행복한가정만들기 프로그램 등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복한가정만들기 사업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의 가정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으로 삼고, 이를 여성인력 개발과 포교의 주축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법인 설립과 함께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정기법회와 교육 등을 실시해 회원들간의 결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숙 원장은 “법인 설립을 계기로 불교계 안팎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의 공신력을 높이고 불교여성운동의 전문성과 조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2)722-2101

여성부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해 새마음 새출발~

정해년 새로운 해가 밝았다. 12월 30일~1월 1일 열린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의 새해맞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60여 명 불자들은 속리산 문장대에 올라 힘겹고 분주했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새 희망의 서원을 세웠다.

글·사진/속리산=박재완 기자

차기 정권은 하나님이 세운다?

신신목 회장. 오마이뉴스 인터뷰서 ‘위험한 발언’

신신목 한국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이 “(차기)정권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라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인터넷 언론인 ‘오마이뉴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공개 지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신 대표회장이 “결론적으로 (차기)정권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한 나라의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대답했다고 1월 5일 보도했다.

신 대표회장은 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으니 그렇게(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공개적으로 지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년 전 ‘서울시 불행’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신 대표회장은 “현재 개신교 흐름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으로 쏠리고 있다”고 설명한 뒤 “성실한 개신교 신자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고 분석했다.

남동우 기자

종교계 사형제 폐지 한 목소리

법무부 관계자가 최근 유영철에 대해 사형집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자, 종교계에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불교사형제지위위원회(위원장 진관)와 기독교사형제지위위원회, 천주교사형제지위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월 3일 사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가 사형집행의 발상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21세기 최고의 가치로 삼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63명에 이른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폐지 법안이 제출돼 있다.

박봉영 기자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꼽히는 아토피 치유책을 사람의 친환경 사상과 생활양식에서 찾는 시도가 본격화 된다.

생태지평연구소와 불교환경연대, 여주 신특사, 여주환경운동연합 등은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신특사에서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를 연다.

이번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는 아토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

“천성산 지하수 고갈 우려가 현실로”

지울 스님 현장조사, 조선일보에 ‘공개질의서’

한동안 경북의 산촌 마을에서 지내온 지울 스님이 다시 천성산 현장으로 돌아왔다. 조선일보의 기사가 스님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현장에 다시 불러 세웠다.

문제의 기사는 조선일보 2006년 12월 30일자에 ‘천성산 곳곳 발파 굉음...공기 단축 위해 밤샘’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지하수 유출 거의 제로’ ‘환경관련 큰 문제없어’ ‘노대통령 재검토 지지 도용농 사건 경제적 손실 총 2조 5161억원 추산’ 등 폄하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하수 유출은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의 최대 쟁점. 이에 대해 ‘지하수 유출 거의 제로’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울 스님은 곧바로 원효터널 공사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동안에도 천성산 유량 변화를 꾸준히 측정해온 지울 스님은 현장 인부들과의晤사를 끝에 공사현장에 들어가 지하수 유출 현장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사진).

뿐만 아니라 보도되기 3일전인 12월 27일 천성산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말라가는 지하수 우리는 목 탄다’는 피켓을 들고 지하수 고갈과 오염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울 스님은 “언론의 악의적



인 여론몰이에 국민들의 알 권리가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지하수 유출 제로’나 ‘환경관련 큰 문제없어’ 등의 제목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천성산과 그 공사현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마름 현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왜곡 보도”라고 강조했다.

지울 스님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에 대해 조선일보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부산=천미희 기자

참가학생들은 산사학교에 참가하는 동안 아토피 증상 문진표와 기초 체질 검진 기록표, 일일 생활일지 등을 작성하고, 유기농 식재료 천연조미료 만드는 법, 천연치약 제조법, 죽 염수 만드는 법 등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도 배울 수 있다. 참가학생의 학부모에게는 산사학교 생활기록부, 영상 생활자료, 온라인 모임 운영, 가정 및 생활환경 오염도 노출평가 등을 제공해 지속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02)338-9572-5

박봉영 기자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 터”

정신지체장애 오세철·박신자씨의 ‘아름다운 결혼식’ 화제

아름답지 않은 신랑, 신부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지난해 12월 22일 연재부제 5층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랑 오세철(32)씨와 신부 박신자(28)씨가 행복에 겨워 짓는 표정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우원(원장 김장숙)에서 생활해온 정신지체 장애우인 이들의 결혼식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부부의 사랑과 자활의지에 보태 많은 이들의 후원으로 열렸다.

정신지체, 뇌병변장애3급인 신부 박신자씨는 그러나 어엿한 직장인이다. 4세때 결혼을 맺은 최정순씨의 꽃집에서 일을 한다. 정신지체3급인 신랑 오세철씨도 (주)부강테크 생산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여명의 하객을 축복을 받으며 진행된 이날 결혼식에서 이들 부부는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을 도우



정신지체 장애우인 신랑 오세철씨와 신부 박신자씨가 백년가약을 맺고 있다.

며 살고 싶다”는 감사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부부는 결혼식과 함께 정든 성우원을 떠나 들만의 보금자리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 사회에 내딛는 이들의 첫걸음에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탤다. (주)부강테크와 (사)한마을장애인후원회가 신혼가구와 신혼여행을 후원해주었고 자장분원사 정도 스님과 신도들은 결혼식 뷔페를 후원했고

SK건설 영남고객센터는 신혼집을 새롭게 단장해줬다.

성우원 김장숙 원장은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감차 안으며 시설을 떠나 사회 속으로 독립하는 이들의 결혼과 독립은 성우원 장애우들의 희망이고 꿈”이라며 “장애우들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편견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청해년, 새해 새날 자비광명 손누리에...

謹賀新年

호국참회 관음기도 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 지 선묵 혜자

청담문토회, 청담장학문화재단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학교법인 청담학원
강북 청소년 수련원,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 (02) 993-3161~3
팩스 : (02) 993-3164
홈페이지 : www.dosunsa.or.kr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손누리에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수도산 봉은사



봉은사 미륵대불 촬영

21세기 한국불교의 근본도량
이제 세계불교의 중심이 되는 사찰로 거듭나겠습니다.

회주 종범
주지 명진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전화 02)3218-4801~5 / 팩스 02)544-2141
www.bongeunsa.org